

영어교육 26호  
1983년 8월

## 談話分析을 통한 文法記述

박 근 우  
(부 산 대)

### 1. 서 론

생성변형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학은 모국인 화자가 가진 추상적 언어능력을 밝히기 위해 실제 언어사용이나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관계가 없는 문법규칙의 형식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론 언어학자들은 주로 자신의 언어지식이나 직관을 토대로 엮은 형태소의 인위적 연결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발화가 아닌 뿐 아니라 문맥을 가지지 않은 고립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분석의 최대 단위를 文 레벨에 국한했으므로 文法性이나 容認性에 관련되는 문제를 만족스럽게 밝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언어란 추상적 심리적 저장물일 뿐만 아니라, 意思傳達에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것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단위인 談話(discourse) 속의 유기적 상호관계의 영향이나 言語外的 요인에 의해서 그 형태와 짜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sup>1)</sup> (Widdowson 1978: 22). 따라서 언어전달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文 레벨의 문법기술이나 학습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談話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談話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표현이 文 레벨에서 다루는 문법성의

1) 사실 월은 "그 자체로서 고립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월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담화의 구체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쓰인다. 따라서 하나의 월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형식구조에 대한 통어적 분석을 행한다는 것은 월을 구체적 상황 속에서 떼어 놓고 고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실험관 속에서 물질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월의 전체적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일웅 1982:31)

과약보다 얼마나 구체적 언어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주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영어 수동문

- (1) a. The rain destroyed the crops.  
 b. The crops were destroyed by the rain.  
 c. It was the rain that destroyed the crops.  
 d. What the rain did was to destroy the crops.

위의 네 文은 매체로 같은 認知的 의미(cognitive meaning)를 가진 同意文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담화 속에서는 각각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해당 文을 넘어서는 문맥에서만 알 수 있다. 즉 (1a)는 (2a)의 응답으로서, (1b)는 (2b)의 응답으로서 사용되어야 적격한 文이 되지, 그 반대이면 적격하지 못한 표현이다.

- (2) a. What did the rain do?  
 b. What happened to the crops?

또한 사람의 발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듣는이가 알고 있는 정보가 文의 앞 자리에 와서 주제의 역할을 행하며, 모르는 내용이나 신정보는 文의 뒷 부분에 나타난다(Chafe 1970: 212-7). 그리고 (2a)는 'the rain' 이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이 前提가 되며, 동시에 알고 있는 구정보이므로 (1a) 처럼 'the rain' 이 문두에 오고 그 뒷부분이 신정보이다.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앞 부분은 (3)처럼 대명사에 의해 대치되거나 삭제되어도 무방하다.

- (2) a. What did the rain do?  
 (3) a. It destroyed the crops  
 b. Destroyed the crops.

그러나 (1a)에서는 'the crops'가 주제이며 화자와 청자가 서로 인정하는 알고 있는 정보(given information)이다. 즉 청자는 'the crops'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귀가 문두에 오고 처음으로 알게 되는 정보는 그 뒤에 온다. 따라서 (4)와 같은 물음도 가능하다.

- (4) a. What was it that destroyed the crops?
- b. Snow destroyed the crops, didn't it?
- c. I believe snow destroyed the crops. Is that right?

(1d)는 소위 擬似分裂文(pseudo-cleft sentence)인데, 정보의 일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 점에 있어서 分裂文과 유사하다. 이 때 'what the rain did'는 'the rain did something'을 전체로 하는 구정보이며, 'destroy the crops'는 이를테면 틀린 정보 (e.g., the rain did something other than destroy the crops)의 시정을 위해서 강조적으로 나온 신정보이다.

위의 예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文이지만,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전후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문맥에 적합하지 못한 文은, 그것이 비록 통어규칙에 맞다손 치더라도 언어전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한 文의 구성은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談話 구조에 의존한다. 이 사실은 文내에 발생하는 삭제 현상에 의해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 (5) a. What happened to the crops?
- b. The crops were destroyed by the rain.
- c. When were the crops destroyed by the rain?
- d. The crops were destroyed by the rain last week.
- (b) a. What happened to the crops?
- b. (They were) destroyed by the rain.
- c. When?
- d. Last week.

위의 예는 영어의 능동문과 수동문에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文 레벨 문법에서 다루는 식으로 '수동문은 능동문에 任意的 변형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나온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다. 즉 능동문과 수동문은 어느 쪽을 택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自由變異形이 결코 아니라, 談話의 요인에 의해서 어느 한 쪽이 선택되는 文脈에 의존되는 표현이다.

Thompson,(1982)은, 수동문은 'cohesive principle of thematic unity'라는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담화구조의 형상이라고 보고, 능동문 대신에 수동문이 선택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A. If the agent is not to be mentioned, use the passive.  
 B. If the agent is to be mentioned, then use the passive only when the non-agent is more closely related than the agent either  
 B. 1. to the “theme” of the “paragraph,” or  
 B. 2. to a participant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clause.

아래 (7)과 (8)은 위의 이유 A에 해당하는 예이다. 즉 이 두 담화에 들어 있는 수동문은 행위자(agent)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agentless passive’이다.

- (7) I left under circumstances of considerable honor. I was given a farewell luncheon by half the staff of the law firm, meaning the lawyers themselves. *I was asked to make a speech and I was much applauded.*

수동문에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문맥상으로 自明하거나 또는 담화의 전후관계로부터 추리해 낼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낮은 내용이기 때문이다.<sup>2)</sup>

(7)은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그 곳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 서술한 글이다. 우리는 여기서 1인칭 narrator에게 오찬을 베풀고 연설을 하게 하고,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lawyers’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8) In the olden days, the maintenance of the cemetery was left to the individual family. One family would pay and the others didn't. You would have weeds in one area and someplace else cared for. Today, in a modern cemetery, you have trust funds. Whenever a family purchases, a part of that money is put into a trust. This trust is inviolate. In this state it's held by a third party, a bank. You know that cemetery is gonna be cared for.

(8)에서 우리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생각해 낼 수 없다. 그러나

2) Givón은 文에 나타나 있지 않은 행위자는 언제나 찾아 낼 수 있는 (‘recoverable’) 있다고 보았다. 즉 행위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담화구조의 전후관계로부터 추정할 수 있거나, 話用論的 정보에 의해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고 했다(Givón 1979: 59-61).

이 때의 행위자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추리할 수 있다. 즉 'trust fund' 로써 묘지 관리인(groundkeepers)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타나 있지 않은 행위자는 문맥상으 추리해 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정확한 신원이 중요하지 않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에 인용한 Thompson의 기준 B.1이 (7)과 (8)에도 해당이 된다는 점이다. 즉 (7)은 1인칭(g)에 관한 담화이므로 'g'가 해당문의 주체로서 문법주어(grammatical subject)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아래 (9)와 (10)은 기준 B.1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두 담화에 있어서 화자(또는 글 쓰는 이)가 능동문 대신 수동문을 선택한 동기를 생각해 보자. 행위자보다 非行爲者(non-agent)를 문법주어의 위치에 주제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은 해당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뜻이 속해 있는 담화현상에서 나온다. 행위자가 명시된 수동문(agented passive)의 선택은 非行爲者(non-agent)가 행위자보다 담화의 주체(theme)와 가까운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바로 앞선 節 속에 있는 항목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 (9) Estimate of Illegal Aliens Tumble: Has Threat of a 'silent' Invasion? Been Overstated?

**The old INS estimate of 12 million illegals is still being used, however, by some in calling for legislation to curb illegal entries.**

(9)는 'Estimate of Illegal Aliens'에 관한 신문의 기사이므로, 이 기사 제목이 전체의 주제이다. 따라서 기사의 주체가 수동문의 문법주어이다. 다음 예 (10)도 non-agent가 담화의 주체가 되어 있는 좋은 보기이다.

- (10) I was a young Columbia man while I-worked in a cafeteria from 6:30 A.M. to 3:00 P.M. *I was respected by the management*, even though I drove the people I worked with insane, because I had standards they couldn't cope with.

(11)은 기준 B.2에 해당하는 예이다. 여기서 'the soldiers'는 담화의 주체는 아니다. 이 귀절은 전체적으로 'protest'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the soldiers'가 문법주어로서 수동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非行爲者인 이 단어가 행위

자에 해당하는 'the Green Berets' 보다 先行節에 있는 항목 (about 1,000 Salvadoran soldiers)과 관계가 밀접 (사실상 여기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 (11) As the first group of about 1,000 Salvadoran soldiers began training at Fort Bragg, North Carolina, Protesters outside the gates shouted slogans and cried signs. **The soldiers are being trained by the Green Berets** as part of a military assistanc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El Savador. At a news conference today, protesters compared the plan to U.S. involvement in Vietnam, and said the U.S. is sitting on the edge of a volcano in El Savador.

(11)의 담화구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수동문의 선택요인은 'interclausal anaphora' 라고 불리워 진더(Thompson 1982: 13). 이러한 조건이 agented passive 의 선택요인이 되는 까닭은 의미의 연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담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기본 원리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의미의 連結性(cohesion)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그만큼 언어전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3. 間接目的語 移動

문을 중심으로 하는 文法記述이나 분석에 의하면 (12)에 간접목적어 이동 변형 규칙이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13)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간접목적어의 이동 변형은 임의적인 언어현상이 아니라 담화의 전후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Creider 1979: 6).

- (12) Tom gave the box to Mary.  
 (13) Tom gave Mary the box.  
 (14) a. What did he give (to) John?

3) Underlying this condition is the central principle of discourse construction of cohesive coding for easier processing: the greater the number of connections we can establish between identical or related participants, the more cohesive and continuous the discourse is, and again, presumably, the easier it is to process. Coding non-agents as subjects in English allows "a transition between successive clauses without the potentially distracting and disruptive introduction of the agent." (Thompson 1982: 13)

b. He gave John a BOOK.

(15) a. Who did he give a book to?

b. He gave a book to JOHN.

c. \*He gave JOHN a book.<sup>4)</sup>

\*He gave John a BOOK.

(14 b)와 (15 b)는 각각 다른 담화현상에서 나온다. 즉 (14 b)는 (14 a)의 응답으로서 그리고 (15 b)는 (15 a)의 응답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14 b)와 (15 b)는 각각 다른 전제를 가진다.

간접목적어 이동도 情報構造와 관련지워 설명할 수 있다. 대개 정보의 가치가 높은 신정보는 文尾에 오며 알고 있는 정보(전제)는 文頭나 文中에 나타난다. (16 a)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16 b)가 (16 c) 보다 적절한 표현이다.

(16) a. What did you do with the camera?

b. I gave the camera (=it) to Tom.

c. \*I gave Tom the camera.

#### 4. 副詞 移動

아래 (17)과 (18)은 부사의 위치가 문미와 문두에 각각 나타나 있는 文이지만, 이 때의 부사 이동도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화자, 청자가 가진 사전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즉 (17 b)와 (18 b)는 그에 대응하는 (17 a)와 (18 a)에서 나온다. 따라서 각 b의 앞 부분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어에 있어서 앞자리가 정보의 가치가 낮은 내용이 오며, 정보의 가치가 높은 새로운 내용은 문미에 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7) a. When will you return home?

b. (I hope to return) the day after tomorrow.

(18) a. What will you do the day after tomorrow?

b. (The day after tomorrow) I hope to return home.

#### 5. 方向副詞의 前置

끝으로 방향부사의 전치(Directional Adverb Preposing)에 관해서 살펴보고

4) #는 담화문맥 속에서 적절하지 못한 文을 표시함.

자 한다. Emonds(1976: 29)에 의하면, 이 DAP는 Root Transformation 으로서 주어가 명사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나 과거일 때 도치와 더불어 감탄문에서 만 나타난다고 했다.

- (19) In came John! (John came in.)  
 (20) Away they ran! (They ran away.)  
 (21) Up the street trotted the dog. (The dog trotted up the street.)  
 (22) \*He noticed that up the street trotted the dog.

그러나 DAP의 적용도 아래의 담화에서 보듯이 화자, 청자가 가진 정보내용과 직결되는 담화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맥에 따라서 그 적격성의 차이가 생긴다.

- (23) Henry Langston's one story was in a newer tract on the northern outskirts of the city. The lights were on, both inside and out. The doors of the attached garage were open but there was no car in it, only a child's tricycle standing against the wall. **A young woman wearing a fur coat came out of the house.** → Out of the house came a young woman wearing a fur coat.
- (24) Keith Sebastian had given me detailed instruction on how to find his house. It was an angular house cantilevered out over a slope. The slope ran steeply down to the edge of a golf course. **Keith Sebastian came out of the house.**  
 →\*Out of the house came Keith Sebastian.

(23)과 (24)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23)의 주어는 不定指示이고 (24)의 주어는 定指示(고유명사는 定指示임)라는 점이다. (23)의 'A young woman'은 신정보의 위치인 文尾에 오고 부사구가 앞으로 이동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24)의 주어 Keith Sebastian은 담화 속에서 이미 언급된 'foregrounded information' (Chafe 1970: 212-7) 이므로 일반적으로 신정보의 위치인 문미로 이동할 수 없다. 주어가 고유명사인 경우라도 DAP의 적용에 의해서 뒤로 옮겨지는 것이 가능한데, 이 때 같은 담화 속에서 바로 전에 언급된 고유명사는 뒤로 이동할 수 없다. (24)는 Keith Sebastian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가 주제이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서 문두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DAP에 의해서 문미에 오면 앞뒤가 어색한 발화가 되어 버린다.

- (25) Keith Sebastian had given me detailed instruction on how to find his house; he was to meet me there with the money. I drove up the driveway and got out of my car. Just as the car door closed, I heard the main door to the house open.

- a.  $\left\{ \begin{array}{l} \text{Keith Sebastian} \\ \text{Dan Carlyle} \\ \text{The Sheriff} \end{array} \right\}$  stepped out of the house.
- b. Out of the house stepped  $\left\{ \begin{array}{l} \text{"Keith Sebastian"} \\ \text{Dan Carlyle} \\ \text{the Sheriff} \end{array} \right\}$ .

이 때 다른 두 고유명사는 처음으로 나오는 등장 인물이라기 보다, 앞서 나왔다고 가정할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담화 속에서 언급되어서 화자와 청자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주어라 할지라도 예상 밖의 새로운 정보가 되면, DAP에 의해서 후치가 가능하다.

(26)에서는 Keith Sebastian이 사망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뜻밖에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의 묘사이므로, 주어의 후치가 가능해진다. (27)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담화이다.

- (26) Keith Sebastian had given me detailed instruction on how to find his house; he was supposed to have met me there with the money. But according to the radio, he had just been killed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In a daze I drove up the driveway to his house and got out of my car. Just as the car door closed, I heard the main door to the house open.

- a. Keith Sebastian stepped out of the house.  
b. Out of the house stepped Keith Sebastian.

- (27) Sam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aking a hot sauna all afternoon. About 5 : 30 he went to the YMCA and undressed and then headed for the sauna room. Just as he reached the door.

- Out of the sauna stepped  $\left\{ \begin{array}{l} \text{a. a girl} \\ \text{b. "a boy"} \end{array} \right\}$ .

그러나 담화가 아무런 사전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예상이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중립적 서술에서는 定指示를 하는 고유명사는 문두나 문미 어느 곳에 와도 무방하다.

- (28) The garage my informer directed me to was a cavernous place. It was ancient in construction and had no exterior lights around the building. The only light available was that from the street light some fifty yards away. I strained my eyes to make out the name over the door. Just then
- a.  $\left\{ \begin{array}{l} \text{the chief of police} \\ \text{my wife} \end{array} \right\}$  stepped out of the shadows.
- b. out of the shadows stepped  $\left\{ \begin{array}{l} \text{the chief of police.} \\ \text{my wife.} \end{array} \right\}$

위의 (28) a, b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文이지만, 효과면이 다르다. 특히 DAP가 적용된 도치문은 先行文과 의미의 연결성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강조’라고만 볼 수 없다. ‘그날 밖으로 나온 것은……였다’처럼, 마지막까지 독자의 기대를 이끌어 가서 문미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갖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 6. 맺는 말

언어학습은 언어의 형식화된 규칙 체계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언어 규칙의 사용법까지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언어는 동질적 不變數의 추상적 형태로 인간의 두뇌 속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언어가 음성이나 문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變異形 가운데서 언어 사용의 환경에 알맞는 한 형이 선택되는 것이다. 요컨대 언어사용은 항상 사회적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言語傳達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을 목표로 하는 영어교육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文을 생성하는 중립적 체계를 넘어서, 영어 원어민의 언어운용이 보여주는 사회언어학적 다양성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고립된 文의 구성을 다루는 文 레벨보다 文을 넘어선 담화를 바탕으로 하는, 즉 담화구조에 입각한 文의 형성, 文의 적격성 등을 고찰하는 문법

의 기술이 영어교육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담화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文보다 담화가 실제 언어사용의 양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일웅. 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Chafe, Wallace.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eider, Chet A. 1979. On the explanation of transformation. *Syntax and Semantics* Vol. 12 (*Discourse and Syntax*) ed., Talmy Givón. pp. 3-22. New York: Academic Press.
- Emonds, Joseph E.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Garcia, Erica C. 1979. Discourse without syntax. *Syntax and Semantics* Vol. 12 (*Discourse and Syntax*) ed., Talmy Givón. pp. 23-50. New York: Academic Press.
- Givó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pson, Sandra A. 1982. *The Passive in English: A Discourse Perspective*. To appear in a festschrift
- Widdowson, H. 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Toward a Discourse-centered Approach  
to Grammatical Description

Keun-wu Pak

Since the advent of Generative-Transformational Grammar in the mid-1950s, the study of syntax has been concerned with the formal model of abstract linguistic competence of an idealized native speaker-hearer. Theoretical linguists, then, have concentrated massively on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language on the basis of introspection, checking potential sentences for grammaticality against their intuitions. Their introspective data were for the most part artificially contrived sentences isolated from their communicative context.

In contrast, there has occurred a growing awareness that the structure of language cannot be fruitfully studied, described, understood, or explained on the basis of sentence-clause level without reference to communicative func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investigation at the discourse level have led many transformational linguist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ntext and discourse analysis.

I have attempted in this paper to present some evidence in support of discourse analysis in the description of syntactic structures.

The topics discussed in this paper include the Passive Construction, Indirect Object Movement, Adverb Movement, and Directional Adverb Preposing. The four topics treated here all share a common characteristic of movement transformation in their syntactic phenomena. Transformational Grammar defines as optional the movement rules involving these four grammatical structures.

Specifically, both the passive and active sentences ar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cognitive meaning in a sentence-level grammar, the choice of one form over the other being explained in terms of the NP Movement

within a given sentence. Furthermore, sentence grammar accounts for language users' choice in this case as optionally determined. Similar explanations are advanced in the treatments of Dative Movement and Adverb Preposing.

However, grammatical descriptions with reference to discourse structures and their analyses lead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choice of a linguistic form is not optionally made, but determined by discourse factors. Discourse factors contribute to the natural flow of continuous speech by means of cohesive coding. The formation of a sentence is made not on its own, but in context, dependent on its environment. In short, every sentence stands in interrelationship to a discourse structure of which it is a part.

In discussing passive sentences relatively close reference has been made to the data provided by Sandra A. Thompson. By examining the data and examples presented here, we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validity of discourse-based approach to the study of English syntax.

It is hoped that EFL programs will make use of discourse analysis in teaching English structures with reference to actual discourse used in communication rather than the analysis of sentences in isolation.